



의약용어 뿌리 찾기



김건상 박사

Barbiturate/바르비튜레이트 <상>

이 약의 이름을 들으면 항상 자살이 연상된다. 자살하는 사람은 어느 시대에나 있기 마련이다. 살기 어려우면 그것이 자살의 이유가 되지만 살기 좋은 세상이 와도 자살은 줄지 않는다. 더 난해하고 복잡한 이유를 대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이다. 어떤 통계는 오히려 사회복지가 향상될수록 자살률이 높아진다는 수치를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.

Barbiturate는 수면제, 최면제, 진정제로 널리 쓰이는 약으로 그 효용성이 높은 약이라 한다. 의사 이긴 하지만 약을 처방하는 일이 거의 없는 방사선과를 전공한 필자의 경우에는 이 약을 처방해 본 기억이 거의 없고 다만 인턴으로 응급실에서 근무할 때 barbiturate를 다량으로 먹고 음독 자살을 시도한 환자를 치료해 본 경험만 있어 이 약의 이름을 들을 때 마다 자살이 연상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.

Barbiturate는 1863년에 말론산과 요소의 합성으로 얻어진 물질로, 문헌에 의하면 Adolf von Baeyer 박사가 명명한 것이라 한다. 어원에 대해

여는 두 가지 설이 있는데 그 어느 쪽이 사실에 가깝다 해도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.

하나는 그리스 시대에 주로 시름을 달래느라 연주하였다는 barbit라는 약기의 이름을 빌려 온 것이라는 설이고, 다른 하나는 말론산과 요소를 합성할 때 요소의 원자재가 되는 소변을 제공하였던 문헌에 사는 여인 Barbara의 이름을 차용하였다는 설이다.

그 어느 쪽이 옳은지는 독자들의 상상에 맡길 뿐이다.

Baeyer 박사가 낭만적인 사람이고 화학 분야 이외의 분야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면 그리스의 아기 쪽이 설득력이 있을 것이고 Baeyer 박사가 실질적인 사람이고 고전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은 사람이라면 문헌에 살았던 Barbara의 이름 쪽이 맞을 것이다.

세상사가 여의치 않아 시름이 많을 때 barbit의 연주를 들으며 마음을 가라 앉히는 과정이 barbiturate를 복용하여 평안을 찾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다.